

시선 북풍조작사건과 학생운동 탄압

안기부 공작 정치에 매도당한 학생운동

오영식

(전대협동무회 회장)

침보영화에서나 있을법한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다.

안기부가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북풍공작'을 벌였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을 좀더 살펴보면 안기부의 '공작'은 작년 대통령선거 때만이 아닌 것 같다. 집권당이 정치적 위기를 맞을 때나, 선거철이던 '간첩'들과 '북한의 도발'이 어김없이 나타났던 것도 모두 안기부의 '작품'임이 밝혀지고 있다.

안기부의 공작은 학생운동에 있어서도 슬한 시비거리가 되었다. 학생운동의 정당한 목소리는 항상 안기부의 '공작'에 매도당해 왔고, 본래의 입부에 맞게 해외정보부에 충실하여 '국익'을 추구했다면 우리의 경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안기부의 공작은 학생운동에 있어서도 슬한 시비거리가 되었다. 학생운동의 정당한 목소리는 항상 안기부의 '공작'에 매도당해 왔고, 본래의 입부에 맞게 해외정보부에 충실하여 '국익'을 추구했다면 우리의 경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부가 국내 정치공작에서 손을 떼고, 본래의 입부에 맞게 해외정보부에 충실하여 '국익'을 추구했다면 우리의 경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가안전' 보다 '권력안전'에 급급한 안기부는 공작정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투명하게 거듭나야 한다

기부를 위시한 공안기관에 의해 '진북'과 '용공'으로 매도당하기 일쑤였다. 학생운동은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배후의 '불순세력'과 '북한'에 의해 조작당하는 것으로 붉게 색칠되었다.

전대협의 독자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던 89년 입수경씨의 방북과 통일운동도 그 배후에 항상 '북한'의 조종이라는 무시무시한 딱지가 붙었다. 박성희, 성용승씨의 방북

도 그러하였고, 범청학련 결성도 그러하였다. 또한 80년대에 있었던 슬한 '조작사건'에서도 안기부의 과잉수사와 조작사비는 끊이지 않았다. 대다수의 언론들도 이런 안기부의 발표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부화뇌동하였고, 국민들은 안기부의 왜곡을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학생운동은 '진북'과 '용공'이 되어갔다. 특히 89년 중앙대

건은 호지부지 종결되었다. 96년과 97년의 이른바 '한총련 사태'도 정권의 의도에 의해 부풀려진 측면이 존재한다. 학생들이 주장한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그러한 주장들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모든 언론이 들고 일어나 '한총련 죽이기'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정권의 안정을 위한 사전정치작업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작'의 냄새를 다분히 풍

기는 것이었다. 프로들의 치밀한 공작에 어설픈(?) 학생들이 걸려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희대 수원캠퍼스의 김형찬씨 분신사건도 안기부의 과잉수사와 고문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원래 안기부가 검거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닌데, 불법으로 체포하여 감금하고 고문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안기부가 평소에도 얼마나 법을 무시한 활동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다. 우리들은 이번 안기부의 '북풍조작사건'을 통하여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안기부'의 음모적인 실체를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안기부가 '국가안전'에만 안주해있고 오직 '권력안전'에만 복무해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번엔 밝혀진 실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의 '북풍조작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안기부가 '국가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저지른 수많은 '공작'과 '불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지 않는다면 또다시 진실은 은폐되고 말 것이다.

또한 안기부의 '공작'과 '불법행위'는 잠시 수그러들뿐,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다시 안기부는 음모의 총본산으로 부활할 것이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된다. 전국민적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안기부 피해자 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안기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와 명예회복을 요구해야 한다.

사설

대학의 자율에 맡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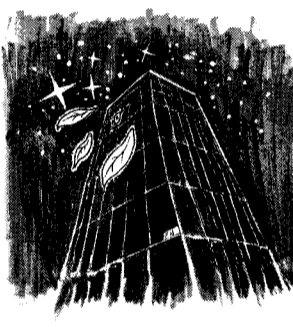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전 정부에 의해 입안되어 지난 3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이 시행령 중 제 28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대학의 학생 정원과 관련하여 '제 28조 1항의 규정외에 의한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서 대학은 복수의 학교 또는 학부별로 이를 정한다. 다만, 대학의 장이 의·약학계 등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학과 별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부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여러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큰 반항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즉, 이 시행령이 교육부가 대학에게 전연적인 학부제 실시를 요구하기 위한 강제조항인가 아니면 권고조항인가를 놓고 대학의 구성원들 사이에 설왕설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되어 있는 몇몇 대학에서는 이 시행령의 강제성 혹은 권고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교육부에 문의했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입안될 때마다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해줬다는 것이 화두로 되어 왔으며 항상 교육개혁의 선결과제로 제시되어 왔던 것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이 피부로 느끼는 자율권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미흡하다는 것이 대학 구성원의 중론이다. 만일 이러한 시행령 공표가 대학의 구성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내 대립의 골을 깊게하는 결과를 빚는다면 더욱 안일 할 수 없다. 학부제 논의 역시 대학의 자율권에 맡겨져야 한다고 본다. 학부제를 하든 안하든 간에 스스로 대학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스스로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 바이다. 대학의 진화·특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지상과제이다. 경쟁력있는 대학으로서 모든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시행령은 오히려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만일 이 시행령을 통해서 교육부가 학부제를 하지 않으면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논리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라면 학내 구성원들의 사기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시행령은 필요하더라도 항상 고려할 수 있다. 새로 들어선 정부가 이 시행령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여 재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세시봉 여중생 집단자살에 관한 보고서

지난 25일, 네 개의 꽃잎이 시멘트 바닥에 처박혔다. 이 어린 여중생들의 동란자살을 두고 사회 곳곳에서 경악과 슬픔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그 책임은 결코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한편으로 우리가 강요하고 강요받아 온 사회 구조가 부의식적으로 형성시킨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홍섭 시사부장

간의 유희를 위한 대중매체의 유희, 스스로 개성적이라 착각하게 하는 획일화된 유행, 단절된 개인을 위한 놀이문화 등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부추기고, 순간을 위한 선택만을 강요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낙오시키는 딱지를 붙이면서 똑같은 옷에 똑같은 생활, 똑같은 유행어에 똑같은 웃음. 거기에서 벗어나면 버려지고 무시받아야 하는가. 청소년은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이지,

결코 가르침을 주입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무수히 많은 사고유형을 주입시키고, 그렇게 살아야만 올바른 삶이라고 암시시키는 지금의 교육제도는 변화하는 사회를 이겨내지 못하는 인간을 생산해 내지는 못한다. 또,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유행을 주입시키는 것이 인성교육은 아니다.

백지상태에서 시작하자. 고문을 공용하고, 차이는 존중하며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이해가 이루어지는 토론문화가 아쉽다. 짜증날 만큼 많이 들려오는 '지금'은 IMF시대, 진정 사회를 바꾸는 건강한 화합이 필요할 때이다. 또다시 스스로 추락하는 꽃잎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통신원 무료배포의 유혹, 독점 우려

"MS 워드, 가져가세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드디어 물량공세를 시작했다. 60여 개 대학에서 로드쇼를 하고 초, 중, 고교에 워드를 무료로 기증하는 등, 약 백만 카피의 워드를 배포했다. 국내에서 60%의 워드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사에 뒤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추격할 체미를 차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통신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비판과 옹호의 소리가 교차되고 있다. 비판의 의견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국내 소프트웨어 사업을 모두 매장시키고 독점하려 한다(하이텔ID:신비의 꽃)라는 걱정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우리의 글을 시장이 점령되는 것은 문화적 속국이 되는 것(나우누리ID:33한)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한다면 신도들이 우리 워드를 사용해야 한다(나우누리ID:연꽃)는 호소도 있다.

한편, 무료배포는 마케팅의 기본이다(나우누리ID:세계최고)라며 우리 기업들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나우누리ID:122H)는 의견과 함께 무작정 애국심을 들먹이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만을 주는 행위이며, 한글과 컴퓨터 등의 우리 기업들이 한국인에 맞는 특별한 기능들을 개발해 자연히 국산 워드로 손이 가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유니텔:lachef72)는 의견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거대한 자본으로 작은 국내 기업들을 삼킨다면 국내에 그들만의 워드 독점 시장이 형성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이 국민의 보호 속에 온실 안 화초처럼 성장한다면 국제 시장에서 내실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 것이다.

(정수윤 기자)

경희만평



Table with 5 columns: No., Date, Time, Location, Title. Workshop 일정표. Includes workshops on Ion Chromatography, Gas Chromatography, SEM/EDX, XRD, and Zetaphoremeter I.

Table with 2 columns: No., Title. '98학년도 국비유학생 선발계획. Includes details on application procedure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eoul Campus International Student Center.

Table with 2 columns: No., Title. '98 보건 의료기술 연구 개발 사업 설명회. Includes details on the research development project,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search center.

Table with 2 columns: No., Title. 대학이동병무상담소 설치. Includes details on the mobile medical consultation center,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tudent health center.

Table with 2 columns: No., Title. 근로(아르바이트) 학생 추가 모집. Includes details on the recruitment of part-time student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tudent employment center.